2014년 0621 지방직 9급 기출 문제

공단기 이선재

문 1. 밑줄 친 '마'의 뜻이 다른 하나는?
① 마이동풍
② 주마간산
③ 천고마비
④ 절차탁마

정답:④
<해설> 선재국어 4권 209쪽 등
④切磋琢磨(끊을 절, 갈 차, 쫄 탁, 갈 마) :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마(磨)'는 '갈다'의 의미이다. ①~③에서 '마'는 모두 '말 마'자로 말의 의미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馬耳東風(말 마, 귀 이, 동녘 동, 바람 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간다.
②走馬看山(다릴 주, 말 마, 볼 간, 뫼 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
③天高馬肥(하늘 천, 높을 고, 말 마, 살찔 비):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문 2.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은?
① 리포트, 서비스, 워크숍, 콤플렉스
② 색소폰, 쥬스, 텔레비전, 판타지
③ 심포지엄, 로케트, 앙케트, 타월
④ 난센스, 리더십, 싸인, 파일

정답:① 선재국어 1권 368쪽 등
<오답풀이>
② 쥬스(×)→주스(○)
③ 로케트(×)→로켓(○)
④ 싸인(×)→사인(○)

문 3.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농악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다.

① 욕이 입에 배어 큰일이다.
② 그는 속이 너무 배어 큰 인물은 못 된다.

③ 갓난아이 몸에는 항상 젖내가 배어 있다.
④ 이 책에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고민과 애정이 배어 있다.

정답:④ 선재국어 1권 118쪽 등
<해설> 보기의 '배다'는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② 생각이나 안목이 매우 좁다.
③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 있다

문 4. 밑줄 친 단어 중 명사를 모두 고른 것은?

○ 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갈등이 다소 해결되었다. ○ 가능한 한 깨끗하게 청소하여라. ○ 그녀는 웃을 뿐 말이 없었다. ○ 나를 보기 위해 왔니?

① 만남, 한, 뿐
② 한, 뿐
③ 한, 뿐, 보기
④ 만남, 보기

정답:② 선재국어 1권 82쪽
<해설>
'가능한 한'에서 '~한'은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다. 또한 '웃을 뿐'에서 '뿐'은 '((어미 '-을' 뒤에 쓰여)) 어찌할 따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 서술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파생명사와 동사의 명사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파생 명사와 용언의 활용형인 명사형은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 잘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술성이 있거나,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형(품사는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사이다.
• 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다) 갈등이 다소 해결되었다.: 서술성이 있으므로, 동사인 '만나다'의 명사형이다.
• 나를 보기 (나를 보다) 위해 왔니?: 서술성이 있으므로, 동사인 '보다'의 명사형이다.

문 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art)'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아르스(ars)'에서 비롯되었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어 '쿤스트(Kunst)'는 '알고 있다', '할 수 있

다'라는 의미의 '쾬넨(konnen)'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미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는 예술뿐만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미적 기술(영어: fine arts, 프랑스어: beaux-arts)'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예술은 조형 예술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형 예술 이외의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을 포함한 미적 가치의 실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 '예술'과 '기술'의 차이
② '예술'의 변천과 그 원인
③ '예술'의 속성과 종류
④ '예술'의 어원과 그 의미의 변화

정답:④
해설 : 첫 번째 단락에서는 라틴어와 독일어의 예를 들어서 '예술'의 어원을 밝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18세기 들어 미적인 의미로 한정된 예술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의 어원과 그 의미의 변화, 혹은 분화가 이 글의 중심내용이고, 제목에도 적합하다.

문 6.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① 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② 너를 위해서 땀을 흘렸어.
③ 훔쳐 갔을 수도 있겠군요.
④ 단팥죽이라도 가져와야지.

정답:① 선재국어 1권 70쪽, 146쪽 문16
<해설>
① 남/기/어/지/ㄴ/적/도/물리/치/었/겠/네: 12개 (13개도 가능함 : 밑의 * 참고)
<오답풀이>
② 너/를/위/하/여서/땀/을/흐르/이/었/어: 11개
③ 훔치/어/가/았/을/수/도/있/겠/군/요: 11개
④ 달/ㄴ/팥/죽/이라도/가지/어/오/아야지: 9개

*형태소의 개수는 이론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①의 경우, '물리-치-다'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무르-이-치-다'로 볼 경우 13개로 분석된다.
④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라도'를 보조사로 파악하고 있다.

문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 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이나 시장 법칙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인간 및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 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체가 된다.
(라) 또한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 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이런 시장 법칙의 지배 아래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품과 상품, 상품과 화폐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다) - (라) - (가) - (나)
④ (다) - (라) - (나) - (가)

정답:②
해설 : 생산자와 상품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에서 출발해서 상품의 자립성을 언급하는 (가)단락이 가장 앞에 온다. 이어서 상품의 주체성을 언급하는 (다)단락이 이어짐으로써 (가)단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연한다. 앞의 상품의 주체성에 더하여 시장 법칙의 독립성을 언급하고 있는 (라)단락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상품과 시장 법칙에 의한 소외를 언급하는 (나)단락이 오면 자연스러운 글의 전개가 완성된다.

문 8. 다음은 연설문의 일부이다. 화자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조금 귀찮더라도 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품들 중에는 앞으로 오백 년 동안 지구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평소에 일회용 도시락과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①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②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정답:②

해설 :
이 글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화제로 제안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문 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책은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계발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매체이다. 하지만,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가 등장한 역사는 6천 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 등장한 역사 또한 6백여 년에 불과하다.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그렇기는 해도 모든 사람이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책 읽기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습관 또한 요구된다.

① 책 읽기는 별다른 훈련이나 노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②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인간 뇌의 본래적 기능은 아니다.
③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 등과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④ 독서 문화는 특정 층위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한다.

정답:①
<해설>
내용 일치 문제이다. 첫 단락의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두 번째 단락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문 10.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때 당신은 마음에게 흩어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

것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도록,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도록, 문제들을 안고 낑낑거리도록, 강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읽으면서 동시에 먹을 때 마음의 일부는 읽는 데 가 있고, 일부는 먹는 데 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느 활동에서도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하세요. '걷고 있을 때는 걸어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어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부분적인 주의를 받을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세요. 어떤 활동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당신은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라.
②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③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라.
④ 과거나 미래가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정답:③
<해설>
중심 내용은 예시, 인용 등의 세부 내용의 뒷받침을 받는다. 제시문의 예시와 인용 등의 세부 내용은 모든 일은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③이 가장 적절하다.
"단지 부분적인 주의를 받을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세요."라는 부분은 어떤 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집중하라'는 앞의 진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문 11. 다음 문장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은 보기와는 달리 너무 맛이 없었어.

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② 볶은 콩에 싹이 날까?
③ 빛 좋은 개살구
④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정답:③ 선재국어 4권 102쪽 등
<해설>
겉보기와 달리 맛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의 '빛 좋은 개살구'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볶은 콩에 싹이 날까?: 불에다 볶은 콩은 싹이 날 리가 없다는 뜻으로, 아주 가망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겉모양은 보잘 것 없으나 내용은 훨씬 훌륭함을 이르는 말.

문 12.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① 두다, 뒤켠, 뒤뜰, 따뜻하다
② 냠냠, 네모, 넘기다, 닐리리
③ 얇다, 앳되다, 여름, 에누리
④ 괴롭다, 교실, 구름, 귀엽다

정답:④
<해설> 선재국어 1권 31쪽 등
사전의 등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따라서, ‘ㅚ→ㅛ→ㅜ→ㅟ’의 순서를 보이는 ④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① ‘뒤켠’과 ‘뒤뜰’에서 ‘켠’과 ‘뜰’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자음 등재순서 상, ‘ㄷ’, ‘ㄸ’ 다음에 ‘ㅋ’이 오므로 ‘두다→뒤뜰→뒤켠→따뜻하다’가 맞다. (다만, ‘뒤켠’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② 냠냠→넘기다→네모→닐리리
③ 앳되다→얇다→에누리→여름

문 13.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② 사람들의 후원금이 방송국에 답지하고 있다.
③ 빙산이 바다 위를 부상하는 것은 온난화 때문이다.
④ 세입자에게 밀린 집세를 너무 자주 채근하지 마라.

정답: ③ 선재국어 1권 258쪽 등
<해설>
‘부상하다(浮上--)’는 ‘물 위로 떠오르다’ ‘좋은 위치로 올라서다’의 의미인데, 빙산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부상하다’는 ‘~으로 부상하다’의 형식이어야 하므로 ‘바다 위로 부상하는 것은~’처럼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개발(開發):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② 답지하다(遝至--): 한군데로 몰려들거나 몰려오다.
④ 채근하다(採根--): 어떤 일의 내용, 원인, 근원 따위를 캐어 알아내다./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하다/남에게 받을 것을 달라고 독촉하다. (이 문장에서는 ‘남에게 받을 것을

달라고 독촉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문 14.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西洋式)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라고 하던 구한말(舊韓末)의 비분강개(悲憤慷慨)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外樣)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信奉)하는 종교(宗敎), 우리가 따르는 사상(思想), 우리가 즐기는 예술(藝術),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西洋的)인 것이다.
>
>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學問)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
>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　　)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① 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② 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③ 전통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④ 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답:② 선재국어 2권 71쪽
<해설>
이기백의 논설문인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으로, '상황 제시 - 화제 제기'의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글의 서론 부분이다. 서양적인 것이 우리 문화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글의 취지이기 때문에, '전통'이 화제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내용을 볼 때, 전통의 개념과 계승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문 1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① 어제 선생님을 뵀습니다.
②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
③ 삼촌이 그러는데요, 민희가 무척 예뻐졌데요.
④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에요.

정답:② 선재국어 1권 269쪽 등
<해설>
'쳐져요'는 '치(다)+어지다'의 구성이다. '치+어+지+어(어미)+요(보조사)'가 줄어든 말로 볼 수 있으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풀이>

① 뵀습니다.→뵀습니다.: '뵈+었+습니다'의 준말을 써야 한다. '뵈+어'의 준말은 '봬'이므로, '뵀습니다'가 맞는 표기이다.
③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대'를 쓴다.: '예뻐졌데요.→예뻐졌대요.'
④ 체언 뒤에 붙는 '이에요/이어요'가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쌍둥이+이에요'를 줄여 쓸 때에는 '쌍둥이예요'로 표기한다.

문 16. 다음 시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ᄒᆞ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ㅣ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① 서리지탄(黍離之歎)
② 만시지탄(晩時之歎)
③ 망양지탄(亡羊之歎)
④ 비육지탄(髀肉之歎)

정답:① 선재국어 4권 210쪽 등
<해설>
<보기>는 고려의 충신이었던 원천석이 지난날을 회고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슬퍼한 <회고가>이다. '서리지탄'은 나라가 멸망하여 옛 궁궐터에는 기장만이 무성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영고성쇠가 무상함을 탄식하며 이르는 말이다. '맥수지탄(麥秀之嘆)'과 유사한 말로, 시조에 드러난 화자의 심경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만시지탄: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③ 망양지탄: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문 17. ㉠~㉣을 어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전 아직도 선생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도, 도시락도 먹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마다 해 주셨던 말씀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고3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 온 이후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쫓겨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음악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 조

심하십시오.

① ㉠: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먹던'으로 바꾸어 필요한 성분을 모두 갖춘다.
② ㉡: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은'으로 바꾸어 높임 표현을 바르게 한다.
③ ㉢: '그것은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입니다.'로 바꾸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도록 한다.
④ ㉣: '조심하다'는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해요체 '조심 하세요'를 사용한다.

정답:④ 선재국어 1권 75쪽 등
<해설>
'조심하다'는 동사이므로 명령형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용구는 어떤 표현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사용됨으로써 원래의 뜻을 잃어 버린 언어 표현을 의미한다. ㉡'내 코가 석 자', '배가 남산만 하다'라는 말은 코의 길이나 배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표현들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어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① ㉠은 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단락의 완결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② ㉡에 제시된 두 예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예로 바꾸어야 한다.
③ ㉢은 앞 문장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긴밀성을 해친다.
④ ㉣은 전체 제시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단락의 통일성을 해친다.

정답:④
이 글은 '㉠: 관용구의 개념(습관적으로 굳어져 사용됨) - ㉡: ㉠에 대한 예시 - ㉢ : ㉡에 대한 상술'로 전개되는 글이다. ㉡과 ㉢이 ㉠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핵심 내용은 ㉠에 있다. ㉣에서 말하는 전통 문화와의 연관성은 앞에서 나오고 있지 않으므로, ㉣은 글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문 19.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색연필[생년필] 사러 문방구에 갔다 올게요.
② 불볕더위[불볃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③ 너도 그렇게 차려입으니 옷맵시[온맵씨]가 난다.
④ 서점 가는 길에 식용유[시굥뉴]도 좀 사 오너라.

정답:② 선재국어 1권 180쪽 등
<해설>
'불볕더위'는 [불볃떠위]로 발음한다. '불볕'의 'ㅌ'은 대표음 [ㄷ]으로 소리 나고, 이 뒤에 연결되는 'ㄷ'은 표준발음법 23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불볃떠위]가 맞는 발음이

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발음이다.
<오답풀이>
①, ④ 합성어,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야여요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냐,녀,뇨,뉴]로 발음한다.
③ 표준발음법 18항 받침 'ㄱ,ㄷ,ㅂ'은 'ㄴ, ㅁ' 앞에서 [ㅇ,ㄴ,ㅁ]로 발음한다.

문 20.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베이징이나 시안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유적들은 왜 그리도 클까? 이들 유적들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라 할 만큼 권위적이다. 왜 그런가? 중국은 광대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그 넓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자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 넓은 나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고 중앙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지방 세력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천자로 불리었으며, 그 권위에는 누구든지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황제는 단순한 세속인이 아니라 일종의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였다. 중국 황제의 절대 권위, 이것을 온 천하에 확실하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중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이며, 그러면 그 나라는 다시 분열된 여러 왕국으로 나뉘게 될 것이었다. 이런 이념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정치적 유물들은 그 규모가 장대할 뿐 아니라 고도로 권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광대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권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조선 시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와 같은 권위를 (㉠)할 수는 없었다. 두 나라의 사회 구조, 정치 이념, 자연 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왕들은 주변의 정치 세력에 대하여 훨씬 더 (㉡)이어야만 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황토로 이루어진 광대한 평원 위에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높고 낮은 수많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이용하여 왕성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양국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큰 것이 선천적으로 잘나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작은 것이 못나서도 아닌 것이다. 한중 양국은 각자의 (㉢)에 따라 오랜세월에 걸쳐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	㉡	㉢
①	강조(强調)	위압적(威壓的)	전망(展望)
②	향유(享有)	정략적(政略的)	능력(能力)
③	구축(構築)	타협적(妥協的)	필요(必要)
④	행사(行使)	당파적(黨派的)	권고(勸告)

정답:③
<해설>
정답:③
㉠의 자리에는 조선 시대 왕의 권위가 중국 황제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내용이 오면 된다. 문맥에 따라 보기의 모든 단어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이 권위의 행사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에는 권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의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구축'이 가장 적절하다.

반면 ㉡의 자리에는 중국 황제가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고 중앙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지방 세력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이 절대로 필요”했던 것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주변의 정치 세력을 대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따라서 ‘타협적’이거나 ‘정략적’이라는 내용이 어울린다.

마지막 ㉢에는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양국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던 것이므로 조건이나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와야 문맥이 연결된다. 이에 적합한 단어는 ‘필요’이다. 따라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③이 정답이다.